

Nordic R&D Policy Newsletter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Contents

북유럽 연구혁신 정책 동향

스웨덴

1. KTH, 스웨덴연구협의회로부터 1억5,500만 크로나 연구비 수주 — 36개 첨단과제 선정
2. 스웨덴 연구진 참여 5개 프로젝트, 2025 ERC 시너지 그랜트 선정
3. 스웨덴 에너지청, KTH 차세대 SMR 핵연료 생산기술 구축에 5천만 크로나 지원
4. 카롤린스카연구소(KI), 2025년도 연구비 5억 2,600만 크로나 확보
5. 스웨덴 암 학회, 카롤린스카 의대 Huddinge 캠퍼스 연구진에 3,430만 크로나 지원
6. KTH 연구진, ERC 1,150만 유로 지원받아 폐암 전이의 진화 메커니즘 규명 착수
7. 스웨덴-인도, 지속가능 산업전환 위한 협력 강화
8. 스웨덴-브라질, 지속가능 산업혁신 협력 강화: 광업·항공·스마트시티 공동 연구개발 본격 추진
9. 스웨덴-KTH, 싱가포르와 양자기술 공동연구 협력 강화
10. OECD, 화학물질 규제 평가에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11. 스웨덴, 미래 기술 초강국 도약 위해 '엑셀런스 클러스터' 45개 프로젝트 본격 가동
12. 스웨덴 에너지청, SSAB의 탈화석연료 철강 전환에 3억 1,400만 크로나 지원
13. 스웨덴 에너지청,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 1억 7,800만 크로나 투자
14. SSF, 2025년 산업 박사과정 프로젝트 12건 선정… AI·의료·6G 등 첨단 분야 협력 본격화
15. 스웨덴 Vinnova, 혁신 스타트업 103곳에 5천만 크로나 지원
16. 스웨덴, 공공부문 AI 혁신 프로젝트 'Svea' 3단계 진입

덴마크

17. 덴마크 정부·의회, 2026-2029년 연구·혁신 분야 장기 투자 협약 발표

18. 덴마크 혁신기금, 국제 연구·혁신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다년간 투자계획 발표
19. 덴마크 독립연구펀드, 정신의학 연구 강화를 위해 29개 프로젝트에 총 1억 4,860만 DKK 지원 발표
20. 덴마크·캐나다, 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선언 체결
21. 덴마크 독립연구펀드, '녹색 전환' 테마 하에 21개 신규 연구프로젝트에 총 1억 4,500만 DKK 지원 발표
22. 노보 노디스크 재단, '글로벌 팬데믹 대비 AI 기반 병원체 분석 플랫폼' 구축 2억 DKK 투자
23. 노보 노디스크 재단, 농식품 부문 지속가능 혁신 촉진을 위한 신규 펠로우십 프로그램 발표
24. 덴마크 혁신기금, AI 기반 예측·처방 분석으로 산업 4.0 설비 유지보수 혁신 추진

노르웨이

25.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총 9,700만 NOK 규모의 식품-환경-기후-공중보건 연계 연구 지원 발표
26.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선도적 연구자에 총 2억 300만 NOK 연구 자금 지원
27.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생명과학·자연과학·기술 분야 국가적 학문평가 후속조치에 1억 100만 NOK 지원
28. SINTEF, 205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국가 전력소비 2% 도달 가능성 경고
29. NTNU 연구팀, 세계 최초로 지하 CO₂ 저장의 글로벌 누적 기록 완전 검증 결과 발표
30. NTNU 연구진, 해양을 활용한 CO₂ 제거 기술의 과학적 가능성과 주요 불확실성 분석
31. NordForsk, '파괴적 기술' 신규 국제 공동연구 공모 사전 발표

핀란드

32.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에 잠정 합의... 2035년 중간목표·국제감축 활용도 포함
33. EU 혁신기금, 핀란드 5개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원 확정 — 차세대 청정기술 상용화 추진
34. 핀란드-칠레, 5년간의 공동 혁신 프로그램 착수...녹색전환 기술 개발 본격화
35. 핀란드 아카데미, 연구성과 활용 지원에 9.7백만 유로 배정 - 탐페레대학교 6개 프로젝트 선정
36. 핀란드 연구위원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PoC 과제 선정... 총 970만 유로 지원

- 37. EU 차기 재정프레임(MFF 2028-2034)과 디지털 리더십 비전—CSC, “실행전략의 구체화가 핵심”
- 38. VTT-NordAmps, AI·6G·위성통신을 이끄는 차세대 RF 반도체 공동 개발
- 39. 산업 설비의 ‘예지보전’ 현실화 - 저비용 센서와 머신러닝으로 선제적 유지관리 기반 마련
- 40. 핀란드 5AMK 네트워크, 지속적 학습 혁신을 위한 공동개발 가속화
- 41. 동핀란드대학교, 3개 국가 핵심 연구 ‘핀란드 아카데미 lippulaiva(Flagship)’에서 3.8백만 유로 추가 확보

북유럽 과학기술 정책 Trend News

스웨덴

1. KTH, 스웨덴연구협의회로부터 1억5,500만 크로나 연구비 수주 — 36개 첨단과제 선정

- KTH 왕립공과대학교의 36개 연구 프로젝트가 스웨덴연구협의회(VR)로부터 총 1억5,500만 크로나의 연구비를 확보함
 - 이번 선정은 2025-2029년 동안 수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연구비 분배의 일환으로, KTH는 총 313건의 선정 과제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음
 - 지원 대상 연구는 생물학적 의약품, 에너지 거래, 양자 이후 암호 알고리즘, 우주 항해용 광돛(light sail)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특히 KTH는 사이버 및 정보 보안 분야에서 전체 프로젝트 지원의 30%를 차지함
 - 올해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 전반에는 총 1,890개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17%의 승인을 기록함. KTH는 이번 일반 분배 외에도 의학 및 건강, 교육과학 분야에서도 4건의 과제가 추가 선정됨
- 이 중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자가 적응형 신경망 기반의 뇌모사 인공지능, DNA 기반 화학 신경망, 전기화학 기반 희토류 촉매 연구, 플라즈마 내 전자 런어웨이 현상 연구, 인공 벨크로를 활용한 생물학적 약물 전달 시스템, 탄소 전환을 위한 3D 프린팅 전기촉매 시스템 개발 등이 있음

연구 책임자	연구 과제	연구 내용
Shervin Bagheri	Biofilm morphology and growth in flows	유체 내 생물막 형성과 성장 메커니즘 연구
Giuseppe Belgioioso	Autonomous peer-to-peer energy trading	분산형 에너지 거래 시스템의 확장성, 공정성, 견고성 분석
Elena Dubrova	Fault attacks on post-quantum cryptographic algorithms	양자 이후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결함 기반 공격 대응 연구
Roberto Guanciale	muVerif	컴퓨터 마이크로아키텍처에 대한 심층 보안 분석
Joakim Gustafson	Personal voices: Adaptable speech synthesis for people with speech difficulties	음성 장애인을 위한 적응형 음성 합성 기술 개발
Pawel Herman	Continuous learning in generative brain-like neural networks	뇌 유사 생성 신경망 기반 지속학습 모델 개발

Noémie Jaquier	Manipulation of deformable objects on Riemannian manifolds	리만 다양체 기반 변형 가능한 물체 조작 기술
Helena Lundberg	Electrochemically driven lanthanide catalysis	희토류 금속 기반 전기화학 촉매를 활용한 유기물 환원 활성화
Oscar Quevedo-Teruel	Low-diffractive geodesic horn antennas for near-field focusing (LOGHAN)	근접장 초점형 저회절 안테나 개발
Aman Russom	NanoSort	AI 기반 미세유체 시스템을 활용한 엑소좀 기반 암 진단 기술 개발
Göran Stemme	Nanopores for Multimodal Biomolecular Sensing	나노포어를 활용한 다중 생체분자 감지 기술
Weihong Yang	Electrically heated 3D-printed catalysts for CO ₂ -to-solid carbon conversion	CO ₂ 를 고체 탄소로 전환하는 3D 프린팅 전기열 촉매 공정 연구

- 이와 같은 지원으로 스웨덴은 기술경쟁력과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출처:

<https://www.kth.se/en/om/nyheter/centrala-nyheter/kth-forskare-far-155-miljoner-av-vetenskapradet-1.1437168>

2. 스웨덴 연구진 참여 5개 프로젝트, 2025 ERC 시너지 그랜트 선정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5년 Synergy Grant 수혜 프로젝트 66건을 발표했으며, 이중 5개는 스웨덴 기관을 호스트로 하는 연구자가 포함됨
- 해당 그랜트는 두 명 이상, 최대 네 명의 연구자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협력하여 단일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 이번 공모에는 총 712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239명의 연구자가 26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참여하게 됨
-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스톡홀름 대학 〉

- 프로젝트: CLIMPEAT
 - 지원자: Gustaf Hugelius
 - 연구분야: 북방 이탄지의 기후변화 반응 연구

〈 스톡홀름 대학 〉

▪ 프로젝트: COSMOMAG

- 지원자: Axel Brandenburg
- 연구분야: 우주 초기 마이크로초 시기의 자기장 연구

〈 룬드 대학 〉

▪ 프로젝트: FORAGER

- 지원자: Peter Jordan
- 연구분야: 홀로세 시대 북부 온대 지역의 인구 성장 경로 분석

〈 왕립 공과대학 〉

▪ 프로젝트: LUMES

- 지원자: Jens Lagergren
- 연구분야: 폐암 전이의 진화 연구

〈 예테보리 대학 〉

▪ 프로젝트: TurPhyCloud

- 지원자: Bernhard Mehlig
- 연구분야: 난류가 구름 물리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와 함께 스웨덴연구협의회는 ERC 그랜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면접 준비 훈련, 공모 설명 웨비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vr.se/english/just-now/news/news-archive/2025-11-06-five-research-projects-with-swedish-participation-receive-the-erc-synergy-grant-2025.html>

3. 스웨덴 에너지청, KTH 차세대 SMR 핵연료 생산기술 구축에 5천만 크로나 지원

-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이 KTH 왕립공과대학의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분야 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5천만 크로나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이번 지원으로 KTH는 SMR용 핵연료 및 주요 구성 부품을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인프라와 시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세부 내용

1. 차세대 원자력 연구 이니셔티브 'NEXUS'의 일환으로 두 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물리학 및 원자재 전문가인 Pär Olsson 교수와 Pavel Kudinov 교수 연구팀이 각각 핵연료 생산 실험실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 플랫폼 구축 주도
- 이번 프로젝트는 KTH의 전략적 원자력 연구 이니셔티브인 'NEXUS'의 핵심 과제로 선정

2. 3D 프린팅 기반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도입

- Olsson 교수 연구팀은 전통적인 주조·성형 방식을 탈피, 분말 기반 3D 프린팅 기술인 '적층 제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핵연료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실험 환경 구축
- 이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첨단 연구 역량을 스웨덴 내에 확보한다는 점에서 높은 기술적 가치를 지님

3. 전력·산업용 열 동시 공급하는 SMR 구현 목표

- 연구진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산업용 열(Process Heat)을 유연하게 공급하는 SMR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비전 제시
- 이는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 및 열원을 SMR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청사진 포함

4. 맞춤형 소재 개발 및 부품 설계 역량 강화

- 분말을 활용해 금속, 연료 등 다양한 물질을 미세 단위로 가공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맞춤형 재료를 직접 설계·생산할 수 있게 됨
- 이는 복잡한 구조의 핵심 부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SMR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Olsson 교수는 “스웨덴은 현재 중공업 탈탄소화에 있어 제한적 선택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산업 전체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실 구축은 원자력의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
- 이번 프로젝트는 KTH가 스웨덴을 넘어 유럽 원자력 기술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기존의 제한적인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소재 개발과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을 선도할 차세대 연구 환경이 스웨덴에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함

※ 출처:

<https://www.kth.se/en/om/nyheter/centrala-nyheter/kth-labb-ska-fornya-tillverknigen-av-karnbransle-1.1434689>

4. 카롤린스카연구소(KI), 2025년도 연구비 5억 2,600만 크로나 확보

- 카롤린스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KI)는 2025년 스웨덴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의 주요 연구지원 공모에서 총 106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5억 2,600만 크로나 이상의 연구비를 확보함
 - 이 중 대부분은 의학 및 건강 분야에서 선정된 102개 과제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약 5억 2,600만 크로나가 배정될 예정임
 - 또한 KI는 자연 및 공학 분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각각 1건 및 3건이 선정되어 추가로 약 1,870만 크로나의 연구비를 확보함
 - 이번 선정은 의학 및 건강 분야 연구공모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KI가 여전히 스웨덴 연구 생태계 내 핵심 연구기관임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됨
 - 스웨덴연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해당 분야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승인율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7%로 감소함

○ 이번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공모 유형이 포함됨

- 의학 및 건강 분야 일반 연구비
- 신진 연구자(Start-up) 지원
- 중견 연구자(Consolidator) 지원
- 동물실험 대체 및 개선(3R) 연구개발 지원
- 미국과의 암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형 연구비
- 임상 환경 내 연구 전념시간 확보 지원

○ VR의 연구자 중심 평가 시스템에서도 KI의 연구 제안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스웨덴 내 생명과학 및 건강 연구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news.ki.se/the-swedish-research-council-awards-ki-106-grants-in-three-calls-for-proposals>

5. 스웨덴 암 학회, 카롤린스카 의대 Huddinge 캠퍼스 연구진에 3,430만 크로나 지원

- 스웨덴 암 학회(Swedish Cancer Society)는 최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연구를 대상으로 카롤린스카의대 Huddinge 캠퍼스(Department of Medicine, Huddinge, MedH) 소속 11명의 연구자에게 3,430만 크로나(약 51억 원)를 연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 연구자들은 백혈병, 간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 질환에 대해 선도적인 면역학 및 분자 수준의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전략을 모색중 임
- 특히 면역세포의 기능 변화, 유전적 돌연변이 지도, 조직 특이적 면역 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T세포의 항암 역할과 면역 치료 응용

○ 대표 연구 주제

• T세포 및 면역세포 기반 면역치료 연구

- Marcus Buggert (3,000,000SEK):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T세포 기능 장애 기전을 규명해 차세대 CAR-T 치료법 개발세포의 항암 역할과 면역 치료 응용
- Michael Uhlin (3,000,000SEK): 감마델타 T세포($\gamma\delta$ T cell)의 항암 역할과 면역 치료 응용
- Tim Willinger (2,000,000SEK): 콜레스테롤 대사체의 면역 감지와 항암 면역 반응의 관계

• 종양미세환경과 면역세포 연구

- Nicole Marquardt (3,000,000SEK): 폐 조직 내 자연살해세포(NK cell)의 종양 환경 적응과 기능 분석
- Jenny Mjösberg (4,500,000SEK):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종양 내 림프구의 치료 반응 유도 가능성
- Andrea Ponzetta (1,600,000SEK): 복막 면역 반응을 통한 전이성 위암 치료 예측

• 유전 및 분자 기반 암 연구

- Maria Eriksson (3,000,000SEK): 구강 상피 조직 돌연변이 지도를 통한 스누스 사용자 유전적 위험 분석
- Eva Hellström Lindberg (7,500,000SEK): 골수이형성증후군(MDS)에서의 분자 기전과 표적 치료 전략
- Petter Woll (1,600,000SEK): TP53 돌연변이와 면역 회피 기전 분석

• 기타 주요 암 관련 연구

- Hannes Hagström (4,500,000SEK): 간암의 예측 및 예방 연구
- Magnus Tobiasson (600,000SEK): 복유립 MDS 그룹 연구 지원

- 이번 연구비 지원은 정밀의료 및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암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면역 치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news.ki.se/over-sek-34-million-from-the-swedish-cancer-society-to-medh-researchers>

6. KTH 연구진, ERC 1,150만 유로 지원받아 폐암 전이의 진화 메커니즘 규명 착수

- 유럽연구위원회(ERC)가 ‘LUMES(LUng cancer Metastasis Evolutionary Studies)’ 프로젝트에 1,150만 유로를 지원하며, 암 전이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6년간의 대규모 연구가 시작됨
 - 이번 연구는 원발 종양이 어떻게 전이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전이암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 확산되는지를 정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TH 왕립공과대학교의 Jens Lagergren 교수(전산생물학·SciLifeLab 소속)가 이끄는 연구팀은 머신러닝과 확률모델링 기반의 진화 분석 방법을 활용해, 전이암 발생의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단초를 찾고자 함
 - 그는 “암은 본질적으로 진화적 과정이며, 전이 환자의 종양 진화사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 전략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연구팀은 사망 후 채취된 원발 및 전이 세포 샘플을 포함하는 PEACE(사후 고도암 환경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하여, 암의 유전적 다양성과 전이 경로를 추적함. 또한 혈액 속 DNA 조각(순환 종양 DNA)을 ‘유전적 화석 기록’으로 분석해 전이의 시점과 기원을 비교 연구할 예정임
 - 특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폐암을 중심으로, DNA의 대규모 복제 및 결실(결손) 사건을 시간축에 따라 추적함으로써, 어떤 세포나 클론이 전이를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 Lagergren 교수는 “전이가 언제, 어떤 세포에서 시작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면, 이를 다른 암종에도 적용해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연구는 암의 진화적 기원을 해명해 전이 발생의 예측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하고, 혈액 기반 조기 진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www.kth.se/en/om/nyheter/centrala-nyheter/nytt-erc-anslag-forskare-ska-kartlagga-hur-cancer-sprider-sig-1.1437885>

7. 스웨덴-인도, 지속가능 산업전환 위한 협력 강화

- 스웨덴의 Sara Modig 국무차관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양국 간 산업 및 혁신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함

- 이번 방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광업과 친환경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스웨덴과 인도의 녹색 전환 전략을 가속화할 중요한 계기가 됨
- odig 차관은 뭄바이와 뉴델리에서 철강·광업, 자동차·해운, 섬유산업 분야의 스웨덴 및 인도 기업들과 면담하며 산업 협력의 기회를 논의하고, 스웨덴의 기술 혁신과 인도의 전문성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India-Sweden Mining Day’ 행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광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Volvo Group-Tata Motors 간 녹색 운송 파트너십은 LeadIT 산업전환 플랫폼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정책 협력, 규제 연계 등이 포함됨
- 또한, 인도 철강부 및 항만·해운부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회담, India Maritime Week 2025 연계 행사 및 자와할랄 네루 항만(JNPT) 방문을 통해, 스웨덴 기업의 철강·해운·항만 분야 진출 기회도 모색됨
- JNPT는 인도 전체 항만 물동량의 50%를 담당하는 핵심 항만으로, 스웨덴의 해양산업 기술 협력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됨

※ 출처: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5/11/sverige-och-indien-fordjupar-industri--och-innovationssamarbeten/>

8. 스웨덴-브라질,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협력 강화 - 광업·항공·스마트시티 공동 연구개발 본격 추진

- 스웨덴과 브라질이 양국 전략적 혁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광업,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이번 사업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레카(Eureka)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실용적인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임
- 2009년 시작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AI, 지속가능한 도시, 항공 기술,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 특히 항공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를 포함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협력은 양국의 핵심 공동 과제로 주목받고 있음
- 양국은 2026년 수교 200주년을 계기로 장기적인 혁신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며, 최근 개최된 ‘Brazil-Sweden Innovation Week 2025’에서는 산업계, 학계, 공

공 부문 관계자들이 모여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 미래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

- 스웨덴 혁신청(Vinnova)의 Remy Kolessar 국제협력 책임자는 “양국 파트너십은 지식 교류와 혁신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평가함
- 또한, Ninad Bondre 혁신청 국제협력 담당자는 “2026년부터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십(RAMP)을 통해 브라질과의 협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히, 향후 협력 분야가 원자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함

※ 출처:

<https://www.vinnova.se/nyheter/2025/10/sverige-och-brasilien-satsar-pa-innovationer-inom-gruvdrift-flygteknik-och-hallbara-stader/>

9. 스웨덴-KTH, 싱가포르와 양자기술 공동연구 협력 강화

- 스웨덴과 싱가포르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며, 연구개발 및 산업 혁신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25년 10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의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KTH 왕립공과대학은 스웨덴 측 핵심 파트너로서 중심적 역할을 함
 - 이번 협력은 공동 연구, 학술 교류, 공동 연구비 공모는 물론,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KTH는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자용 소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국가 양자 인프라 구축 및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 중임
- 이 협력에는 KTH를 포함한 스웨덴의 11개 대학 및 연구기관(Chalmers, Karolinska, Linköping, Lund, Luleå, Stockholm, Uppsala 대학 등)과 스웨덴 혁신청(Vinnova), 싱가포르 측에서는 국가 양자청(NQO)이 참여하며,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산업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그 중요성을 강조함
 - 이로써 스웨덴은 세계적인 양자기술 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됨

※ 출처:

<https://www.kth.se/en/om/nyheter/centrala-nyheter/kth-i-nytt-samarbete-med-singapore-inom-kvantteknik-1.1437128>

10. OECD, 화학물질 규제 평가에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학술 연구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새로운 지침서가 발표됨
 - 이 문서는 연구자와 규제기관 평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고려사항과 권고안을 담고 있으며, 학계의 독립 연구 결과가 보다 넓은 규제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 기존 학술 연구 데이터는 신뢰성과 보고 기준 부족, 표준화된 시험지침(Test Guidelines)을 따르지 않음 등의 이유로 규제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음
 - EU의 '독성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화학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화된 데이터 평가 도구와 통합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함
- OECD의 이번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양방향 지원을 제공

- 규제 평가자 대상
 -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성 평가 도구 소개
 - 실제 적용 사례 및 구조화된 통합 접근 방식 제시
- 연구자 대상
 - 연구 설계 시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고려사항 안내
 - 데이터 문서화 및 보고 기준 제안

- 카롤린스카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IMM)의 Anna Beronius 박사는 이번 OECD 전문가 그룹에 참여했으며, "이 지침은 학술 연구와 규제 실무 간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함
- 이번 OECD 가이드라인은 학계 연구 결과가 화학물질 규제 평가에 전략적으로 통합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으로 과학 기반의 정책결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https://news.ki.se/new-oecd-guidance-document-supports-use-of-research-data-in-regulatory-assessments-of-chemicals>

11. 스웨덴, 미래 기술 초강국 도약 위해 '엑셀런스 클러스터' 45개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6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혁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엑셀런스 클러스터(Excellenskluster)' 육성 사업의 첫 단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총 4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약 10억 크로나가 향후 4년간 투자될 예정임
-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반 헬스케어, 지속가능한 순환소재,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로봇틱스, 반도체,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스웨덴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향함
 - 이번 사업은 스웨덴혁신청과 스웨덴연구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부 위임 사업으로, 향후 5개의 세계적 기술 클러스터로 육성될 계획임
- Darja Isaksson(Vinnova 청장)은 "급변하는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스웨덴의 지속적 기술 리더십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민·관·학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함
 - 한편, 오는 연말에는 보다 큰 규모의 2차 공모도 예정돼 있어 국내외 산업계, 스타트업, 연구기관의 참여가 예상됨

※ 출처:

<https://www.vinnova.se/nyheter/2025/10/sverige-siktat-mot-varldstoppen---45-projekt-in-leder-satsning-pa-framtidens-teknik/>

12. 스웨덴 에너지청, SSAB의 탈화석연료 철강 전환에 3억 1,400만 크로나 지원

- 스웨덴 철강회사 SSAB가 탈화석연료 기반 철강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함
 - 이에 따라, 스웨덴 에너지청은 산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Industrial Leap을 통해 SSAB가 추진하는 후처리 공정의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약 3억 1,400만 크로나(약 471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는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며, 차세대 지속가능 철강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투자로 평가됨
- 기존에는 열간압연 및 철강 제품 후처리 과정에서 프로판과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Luleå 지역에 조성될 신규 설비는 폐열 재활용 및 전기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임

- 에너지청의 Klara Helstad 부국장은 “이 프로젝트는 산업 내 에너지 통합 및 전기화 기술 발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힘
 - 현재 해당 공정은 볼렌에(Borlänge) 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Luleå에 새로운 공장이 건설될 경우 연간 약 17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됨
- 이번 지원은 EU의 코로나19 회복기금인 ‘Next Generation EU’의 일환인 회복 및 회복 탄력성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웨덴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장기 국가전략 Industrial Leap의 일환으로 집행됨
 - 스웨덴은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을 국가기후목표로 설정하고, 산업 전반의 대규모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energimyndigheten.se/en/news/2025/swedish-energy-agency-grants-sek-314-million-for-fossil-free-steel-production/>

13. 스웨덴 에너지청,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 1억 7,800만 크로나 투자

- 스웨덴 에너지청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억7,800만 크로나(약 267억 원)를 22개의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됨
 - 이번 투자는 연구 인프라, 시험·실증 환경 조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스웨덴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인 전기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스웨덴은 모든 형태의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해졌고, 에너지청은 ‘미래 전력 시스템(Future Electricity System)’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자금이 집행될 예정임
- 이번에 선정된 22개 과제 중 16개는 원자력 응용 분야의 연구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총 1억300만 크로나를 지원받고, 나머지 6개 프로젝트는 원자력 개발을 위한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로, 7,500만 크로나가 배정됨
 - 에너지청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스웨덴이 원자력 기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강력한 연구 기반은 혁신적 솔루션의 시장 도입을 촉진하고, 학계와 산업계 간 협력을 증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출처:

<https://www.energimyndigheten.se/en/news/2025/the-swedish-energy-agency-strengthens-the-development-of-future-nuclear-power/>

14. SSF, 2025년 산업 박사과정 프로젝트 12건 선정… AI·의료·6G 등 첨단 분야 협력 본격화

○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은 2025년도 산업 박사과정 프로젝트 (Industrial Doctoral Student Projects)로 총 12건의 공동 연구를 선정하고, 각 프로젝트에 325만 크로나(약 4억 8천만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지원은 기업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해 4~5년간 산업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박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AI 기반 자율주행 검증, 생물의약 센서, 차세대 적층제조, 고성능 공구강 가공, 6G 위치추적 등 첨단 응용 분야가 중심임

○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산업체 (Company)	대학 (University)
EASe – Evaluate Autonomous Systems with Foundation Models (Christian Berger)	Einride Autonomous Technologies AB	Göteborgs 대학 (GU)
Nanoplasmonic Sensor for Biologics Bioprocess Monitoring (Veronique Chotteau)	ArgusEye	왕립공과대학 (KTH)
Label-free Single Biomolecule Analysis with Nanopores (Andreas Dahlin)	AstraZeneca	Chalmers공과대학
Microstructure Control during Hybrid Additive Manufacturing (Magnus Hörnqvist Colliander)	GKN Aerospace Sweden AB	Chalmers 공과대학
Next-Gen Processing of High-Performance Tool Steels (Peter Krajnik)	Uddeholms AB	Chalmers 공과대학
Additive Manufacturing for High Efficiency Motors (Johan Moverare)	ABB AB	Linköpings 대학 (LiU)
Intratreatment kVMV-Imaging for Inline Adaptive Radiotherapy (Mats Persson)	Elekta	왕립공과대학 (KTH)
Cross-discipline for Improved Arteriovenous	Njurmedicin, Karolinska	왕립공과대학 (KTH)

Fistula Care (Lisa PrahL Wittberg)	Universitetssjukhuset Huddinge	
Beyond Accuracy: Trustworthy Positioning Using 5G & 6G (Isaac Skog)	Ericsson AB	왕립공과대학 (KTH)
Digital Twin-assisted 6G-B6G Dynamic Spectrum Sharing (Tommy Svensson)	Ericsson AB	Chalmers 공과대학
Vaping and Rhinovirus as a Driver of Chronic Lung Disease (Lena Uller)	AstraZeneca	Lunds 대학 (LU)
Machine Learning Improving Superconductivity in Power Cables (Niklas Wahlström)	NKT A/S	Uppsala 대학 (UU)

- ▲자율 시스템 평가를 위한 기초 모델(AI) 적용(에인라이드-에테보리대), ▲생물의약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용 나노플라즈모닉 센서(ArgusEye-KTH), ▲전자현미경 수준의 나노구멍 기반 분자 분석(아스트라제네카-찰머스), ▲하이브리드 적층제조로 항공 부품의 미세구조 제어(GKN Aerospace-찰머스), ▲흡연·바이러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폐 질환 기전 규명(아스트라제네카-룬드대) 등이 포함됨
- 또한, ▲5G·6G 기반 고신뢰 위치 측위 기술(에릭슨-KTH), ▲6G 주파수 공유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릭슨-찰머스), ▲기계학습을 통한 초전도 케이블 성능 향상(NKT-웁살라대) 등 차세대 통신과 전력 인프라 기술도 포함되어 첨단 산업과 학계의 공동 성장이 기대됨
- 본 사업은 첨단 기술 연구를 산업 현장에 직접 연결하며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스웨덴 국가 전략의 일환임

※ 출처:

<https://strategiska.se/en/press-release/this-years-ssf-industrial-doctoral-student-projects-are/>

15. 스웨덴 Vinnova, 혁신 스타트업 103곳에 5천만 크로나 지원

- 스웨덴혁신청 Vinnova는 'Innovativa Startups 2025'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3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약 5천만 크로나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선정된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공모에는 1,0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수혜 기업들은 생명과학, IT, 문화 콘텐츠, 순환경제, 식품, 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에너지청, 과학기술단지 협회(SISP), 대학 기술이전 네트워크(SNITTTS), Almi 등과의 협력 아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강화됨

○ Vinnova 측은 “기술이나 제품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혁신 아이디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스웨덴의 혁신 생태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프로젝트명	기업명	분야	개요
NanoLIPID™	Emulsi Biotech AB	생명과학 (제약)	비만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경구용 약물 전달용 지질 플랫폼 개발
AI 기반 네트워크 피싱 방어	Gaetir AB	사이버 보안	사용자 행동 분석 기반의 자동화된 피싱 대응 솔루션
철도 기반 측정 도구	Covalence Ventures AB	스마트 인프라	철도 전력선 기초 설치 효율화용 측정 시스템
Digga - 문화 플랫폼	Digga Sverige AB	문화 콘텐츠	전국 문화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Permly	Permly AB	디지털 정부	AI 기반 취업비자 자동 처리 시스템 개발
Direct Air Carbon Capture 기술	Korall Carbon Capture AB	탄소 제거	저에너지 액상 기반 공기 직접 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전 단계 검증
GCC Reactor 2025	Votion Biorefineries AB	에너지 전환	기존 정유 공정을 위한 바이오 오일 기반 대체 원유 공급 기술
섬유 엘라스탄 제거 재활용 공정	Renasens AB	순환경제	수분 없이 엘라스탄을 제거하여 혼합 섬유 고품질 재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
PreSICC AI 플랫폼	Mareld Technologies AB	식품·포장	식품 산업 내 미생물 오염 예측을 위한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

○ 이번 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 진입 시 직면하는 위험과 장벽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됨

- 특히 생명과학,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문화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스웨덴 혁신의 다양성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

※ 출처:

<https://www.vinnova.se/nyheter/2025/10/50-miljoner-till-innovativa-startups/>

16. 스웨덴, 공공부문 AI 혁신 프로젝트 ‘Svea’ 3단계 진입

- 스웨덴의 공공부문 AI 혁신 프로젝트인 ‘Svea: 공공부문을 위한 공동 디지털 어시스턴트 (A Shared Digital Assistant for the Public Sector)’가 2026년부터 3단계에 본격 돌입함
 -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주권형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AI Sweden이 주도함
 - 현재까지 55개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3단계에 앞서 70개를 훌쩍 넘는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이는 스웨덴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AI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수요를 반영함

○ 3단계 주요 내용

1. 오픈소스 기반 LLM 지속 개선
2. 공공부문 맞춤형 AI 어시스턴트 훈련
3. 현장 실무자 중심의 훈련 데이터 구축
4. 법적 검토 및 데이터 보호 대응
5. 조직 변화관리와 교육 확산 병행
6.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 지원

- 프로토타입 ‘Svea’는 이미 수천 명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국가 디지털 주권, 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 효율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으로 여겨짐
- AI Sweden의 프로젝트 매니저 Jonatan Permert는 “공공부문 AI 역량 강화에 대한 열의와 대규모 협력은 Svea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 기술 파트너사로는 Airon이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1단계에서는 Intel이 Gaudi 2 기반의 연산 자원을 공급해 기반 구축을 지원함
- 이번 프로젝트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AI 활용 문화의 체계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유럽 내 공공부문 생성형 AI 모델 개발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출처:

<https://www.ai.se/en/news/sveas-third-phase-almost-fully-subscribed>



17. 덴마크 정부·의회, 2026-2029년 연구·혁신 분야 장기 투자 협약 발표

- 덴마크 정부와 의회 다수당은 ‘연구 및 혁신 협약(Aftaler om Forskning og Innovation 2026-2029)’을 체결하여 향후 4년 동안 국가 연구·혁신 분야의 전략 방향과 우선순위를 확정함
- 본 협약은 안전보장·녹색전환·건강·핵심기술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다년간 중점 투자를 포함하며, 기존 단년도 편성 방식보다 안정성과 전략성이 강화됨
- 협약에서 확보된 재정은 2026년 재정안 내에서 47억 2,200만 DKK, 2027-2029년 각 연도 29억~30억 DKK 규모로 편성됨
- 장기적·전략적 접근 아래, 대학 기초연구 지원, 혁신기금(IFD) 투자 확대, 녹색·국방·양자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이 추진될 계획임

〈 연구 및 혁신 협약 2026-2029 (Aftaler om Forskning og Innovation 2026-2029) 〉

1. 개요

- 덴마크 정부는 2026~2029년 국가 연구·혁신 전략을 확정하고, 2026년 약 47억 2,200만 DKK 규모의 투자를 결정함
- 투자는 ▲안보·핵심기술 ▲그린 전환 ▲보건·라이프사이언스 ▲기초·혁신 생태계의 4대 축으로 구성됨

2. 전체 재정 규모 및 연도별 투자

연도	배분액 (DKK)
2026	47억 2,200만
2027	29억 9,920만
2028	29억 6,630만
2029	30억 3,180만

3. 2026년 분야별 주요 투자

1) 안보·핵심기술 (약 15억 9,160만 DKK)

기술 주권 확보 및 전략기술 중심 투자

분야	주요 내용	2026 투자액
핵심·디지털 기술	반도체·드론·사이버보안 등	2억 7,000만 DKK
양자기술	양자컴퓨팅·센서·통신	3억 1,600만 DKK
우주(ESA)	ESA 확대·Launcher Challenge	4억 810만 DKK

AI	책임 AI·헬스/공공 AI	2억 800만 DKK
바이오솔루션	바이오 소재·발효	1억 DKK
국방 연구	듀얼유즈·NFC	2억 500만 DKK
반도체 프로그램	Chips JU	4,000만 DKK
외교·갈등 연구	지정학·제재 분석	4,090만 DKK
ILL(Institut Laue-Langevin) 참여	중성자 연구시설	1,360만 DKK

2) 그린 전환 (약 23억 3,750만 DKK)

탄소중립·순환경제 중심의 국가 최대 규모 투자

4대 그린 미션(CCUS / Power-to-X / 지속가능 농식품 / 순환경제): 약 3억 DKK

분야	주요 내용	2026 투자액 (DKK)
그린 기술·혁신	에너지·환경·교통	3억 1,000만
그린 기초연구	녹색 자유 연구	1억 5,000만
대학 전략환경	기후·자연·농업	1억 2,000만
해양·해운 연구	해양 전문 연구	2,000만
녹색기술 실증·데모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 (그린 TDU)	실증·테스트베드	8,080만
에너지 기술 개발·실증 프로그램 (EUDP)	에너지 실증·전력저장	2억 9,600만
환경 분야 기술 개발·실증 프로그램 (MUDP)	환경기술	1억 800만
농식품 분야의 녹색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GUDP), 덴마크 유기농 연구센터(ICROFS)	유기농 연구	5,350만
기후기술 패키지	테스트·모델링·CO ₂ 저장	5억
PFAS 센터	PFAS 정화	4,500만
기후 적응·경보	홍수·가뭄 대비	7,330만
빙하 관측	PROMICE·GC-Net	2,490만

3) 보건·라이프사이언스 (약 7억 9,290만 DKK)

정밀의료·여성건강·정신건강 중심의 의료 혁신

분야	주요 내용	2026 투자액 (DKK)
Life science 혁신	정밀의료·AI 의료	3억 1,790만
임상·독립 연구	AMR·영양·생활습관	2억 6,000만
여성 건강센터	여성 질환	4,000만 DKK
난임·가임력	환경·요인	2,000만 DKK
정신건강	조기발견·XR 치료	1억 6,500만 DKK
고령·다중질환	치매·돌봄	5,000만 DKK

4) 기초·자유 연구 및 혁신 생태계 (약 15억 6,340만 DKK)

대학 중심의 연구 기반·창업·기술이전 역량 강화

분야	주요 내용	2026 투자액 (DKK)
대학 자유 연구비	고위험·도전적 연구	5억
덴마크 자유 연구기금 (FFF) 자유 연구	연구자 주도	1억 2,000만
인재 프로그램	신진·중견 연구자	1억 4,950만
대학 혁신기금	기술이전·창업	3억
전문·직업대 R&D	실무 기반	1억
창업·사업화	Innoexplorer·FFE	2,350만
연구 인프라	장비·데이터	3,500만

※ 출처:

<https://dff.dk/en/about-the-fund/news-and-press/all-news/news-uk/2025/oktober/new-im-pact-report-how-research-creates-value-knowledge-and-societal-impact/>

18. 덴마크 혁신기금, 국제 연구·혁신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다년간 투자계획 발표

- 덴마크 혁신기금은 향후 국제 연구·혁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다년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이사회와 전략적 우선순위와 기존 공모에서 확인된 수요를 반영한 것임
 - 동 계획은 북유럽·유럽을 넘어 글로벌 협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 연구기관·기업이 EU 외부의 국제 네트워크 및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의 유연성이 강화됨
 - 예시로, 일본과의 신규 EUREKA Globalstars 이니셔티브에 덴마크 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DKK가 배정됨
- 이번 투자계획에는 녹색 전환 분야 및 EU 참여 프로그램(EU Partnerships)에 대한 투자 확대가 포함됨
 - 최근 녹색 EU 파트너십을 통한 덴마크 기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혁신기금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금 배분을 확대할 예정임
 - 더불어 Chips JU, Horizon Europe 파트너십 등 유럽 단위 프로그램 참여 역시 강화할 계획임
-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재편이 병행되고 있으며, 참여 수요가 낮은 일부 파트너십은 철수하거나 자원이 재배치될 예정임

- 건강 연구 중심의 ERA4Health 파트너십의 낮은 참여율을 반영해 혁신기금은 동 프로그램에서의 철수를 결정함

○ 북유럽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2026년 1,500만 DKK에서 2027·2028년 2,500만 DKK로 확대되며, 이는 덴마크의 북유럽 연구·혁신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임

〈 덴마크 혁신 기금 국제 협력 프로그램 〉

1. 개요

-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덴마크 기관(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제도
- 이를 통해 덴마크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지식 및 혁신을 글로벌 임팩트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함

2. 지원 대상 및 협력 플랫폼

- 지원대상: 덴마크 내 모든 법인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국제 협력 파트너로 활동할 경우 신청 가능)
- 주요 협력 플랫폼

플랫폼	내용
Horizon Europe 파트너십	유럽 차원의 연구·혁신 프로젝트 지원
EUREKA	국제 파트너와 시장지향적 연구·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북유럽·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양자 기술 등을 포함
북유럽 프로그램	예를 들어 NordForsk (Nordisk Ministerråd 소속) 등이 포함

3. 다년간 투자계획 (Multi-Annual Investment Plan, MAP)

- 혁신기금은 국제 협력을 위한 다년간 투자계획(MAP)을 운영하며, 매년 재정법(국가예산) 상황을 감안해 어떤 분야와 프로그램에 투자할지를 결정함
- 2026-2028년을 위한 4차 MAP에서 이사회는 국제 협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했음
- 주요 전략 방향:
 - 1) 기존 협력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초점 강화
 - 2) 일본과의 EUREKA Globalstars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검색 기회 마련
 - 3) 덴마크의 참여가 많은 “녹색 EU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상향 조정

4. 지원조건 및 한도

- 덴마크 파트너 1개체당 최대 300,000 EUR 지원 가능하며 최소는 약 50,000 EUR
- 두 개 이상 덴마크 파트너가 있을 경우 총액 최대 약 500,000 EUR (별도 명시 없는 한)
- 지원비율(지분율)은 참여 주체 유형에 따라 35% ~ 90%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됨
- 덴마크 파트너의 참여 및 승인·집행은 해당 연도의 국가 예산(재정법)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현재 MAP 기간(2025-2027) 동안 자금 지원이 우선시되는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명	플랫폼	이후 call (2027-2028)
All Themes	Eurostars	Horizon Europe	2027, 2028
Health	THCS – Transforming Health and Care Systems	Horizon Europe	2027, 2028
	EP PerMed – Personalised Medicine	Horizon Europe	2027, 2028
	Rare Diseases (ERDERA)	Horizon Europe	2027, 2028
	OH AMR – One Health Anti-Microbial Resistance	Horizon Europe	2027, 2028
	Be Ready Now	Horizon Europe	2027, 2028
	Brain Health	Horizon Europe	2027, 2028
	Nordic/Global (Ad hoc)	Nordic/Global	–
Advanced Tech Nordic/Global (Ad hoc)	Chips JU – Non-Initiative	Horizon Europe	2027, 2028
	Chips JU – Initiative	Horizon Europe	2027, 2028
	Globalstars Japan	EUREKA	–
	Applied Quantum Technologies	EUREKA	Pending
	Nordic/Global (Ad hoc)	Nordic/Global	–
Green Transition	Biodiversa+	Horizon Europe	2027, 2028
	SBEP – Sustainable Blue Economy	Horizon Europe	2027, 2028
	CETP – Clean Energy Transition	Horizon Europe	2027, 2028
	DUT – Driving Urban Transition	Horizon Europe	2027, 2028
	EUPAHW – Animal Health & Welfare	Horizon Europe	2027, 2028
	Agroecology	Horizon Europe	2027, 2028
	Agriculture of Data	Horizon Europe	2027, 2028
	Forests	Horizon Europe	2027, 2028
	RAMP – Raw Materials	Horizon Europe	2027, 2028
	Water4All	Horizon Europe	2027, 2028

※ 출처:

<https://innovationsfonden.dk/da/news-article/innovationsfonden-praesenterer-ny>

19. 덴마크 독립연구펀드, 정신의학 연구 강화를 위해 29개 프로젝트에 총 1억 4,860만 DKK 지원 발표

○ 덴마크 독립연구펀드가 ‘정신의학 연구(Research in psychiatry)’ 주제로 29명의 연구자

에게 총 1억 4,860만 DKK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함

- 이번 지원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개입, 인과 요인 규명, 치료방법 고도화 등 정신의학 전반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선정된 29개 연구 프로젝트는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장기 치료 효과, 가족 참여, 비약물적 치료 대안 등 다양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부담을 고려하여 고품질 연구 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마련됨

○ 지원된 프로젝트들은 정신질환의 원인 이해부터 치료성과 향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며, 정신의학 분야 전체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공모에서 연구자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평균 기대수명 단축 원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조현병의 생물학적 기전은 무엇인가?”, “ADHD 약물의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핵심 연구질문을 제시했음
- 이는 예방·조기 개입·치료·비약물적 대안 등 폭넓은 연구 범위를 통해 정신의학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치료결과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된 제안서들이 높은 학문적 수준과 창의적 접근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프로젝트 간 상호작용이 정신의학 발전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설정된 12개 연구 테마 중 하나로서, 덴마크 정부의 연구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신의학 연구’ 테마에는 총 16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9건이 선정되어 성공률은 약 18%로 기록됨
- 2025년에 지원되는 12개 테마에는 녹색 연구, 북극 연구, 임상·독립 연구 강화, 고령화 연구, 아동학습·웰빙, 취약 계층 연구, 인공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됨
- 덴마크 독립연구펀드는 테마 연구 외에도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를 포함해 2025년에 약 11억 8,500만 DKK 규모의 독립연구 자금을 배정할 예정임

연구 테마	지원규모 (DKK)
녹색 연구(Green research)	1억 4,840만
북극 연구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북극 지역사회	4,650만
임상 및 독립 연구 강화	2억 2,880만
정신의학 연구	1억 4,840만
인공지능 연구	5,930만
양자 연구 박사후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	1,980만
잉에 레만 프로그램(The Inge Lehmann programme)	8,090만

※ 출처:

<https://dff.dk/en/about-the-fund/news-and-press/all-news/news-uk/2025/november/148-6-million-dkk-to-support-research-in-psychiatry/#accordion-see-all-themes-to-which-independent-research-fund-denmark-will-allocate-funding-in-2025>

20. 덴마크·캐나다, 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선언 체결

○ 덴마크와 캐나다가 양자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선언을 체결함

- 2025년 11월 10일, 덴마크 교육·연구부 장관인 Christina Egelund과 캐나다 대사 Carolyn Bennett가 서명한 이 선언은 양자기술 연구 및 기술 상용화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식화함
- 양자기술은 현재 글로벌 기술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덴마크와 캐나다는 모두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음
- 선언문은 두 나라의 양자생태계를 연구, 혁신, 상업화, 표준화 및 보안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

○ 공동 선언은 연구자 및 학생 교류, 양국 기술상용화 및 보안 강화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틀을 제시함

- 선언문에 따르면 두 나라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연구자 및 학생의 상호 교류를 촉진할 계획임
- 또한 양자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협력과 더불어, 기술이 보안·암호화·환경모델링·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 양국 협력 배경에는 기술우위 확보 및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고려가 있음

- 덴마크 장관은 캐나다를 “매우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연구·혁신에 대한 기본 가치와 강점을 언급함
- 선언문은 양자기술이 전통적 계산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진단기술이나 기후모델링, 사이버보안 등에서 혁신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며 동시에 기술이 보안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협력체결의 한 배경이 됨

※ 출처:

<https://ufm.dk/aktuelt/pressemeddelelser/2025/danmark-og-canada-indgar-faelleserklaering-om-styrket-samarbejde-pa-kvanteomradet>

21. 덴마크 독립연구펀드, '녹색 전환' 테마 하에 21개 신규 연구프로젝트에 총 1억 4,500만 DKK 지원 발표

- 덴마크 독립연구펀드는 '녹색 전환(Green Research)' 테마로 21개 신규 연구프로젝트에 총 1억 4,500만 DKK 규모의 지원금을 할당함
 - 본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태마을, 더 효과적이고 강인한 농작물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포함됨
 - 연구 주제는 기후 변화 · 환경 · 에너지 · 식량 · 자원 재활용 등 녹색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며, 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까지 학제간 접근 방식이 특징임
 -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박사과정 또는 박사후 연구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덴마크 연구자의 성장층(early-career researcher)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임
- 21개 프로젝트는 접수된 415건의 신청 중 선정되었으며, 성공률은 약 5% 수준임
 - 독립연구펀드는 이번 공모에서 총 415건의 신청을 접수했고, 그 중 21건에만 지원금이 수여됨에 따라 선택이 매우 엄격했음을 나타냄
 - 이 테마는 2025년 DFF의 정책적으로 우선 배정된 12개 지정 테마 중 하나이며, 정부의 연구예산 및 전략적 기조와 연계되어 있음
- 지원된 연구들은 탄소 포집, 농업·생태 시스템, 플라스틱 재활용 등 구체적 분야에 집중하며, 덴마크 연구환경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요건도 포함됨
 - 예시로, 새로운 숲 조성이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깨끗한 식수를 보존하면서 숲을 확장하는 방법 등의 주제가 포함됨
 - 또한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지속가능식량 생산, 기후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신회의 강화 등 녹색 전환과 학문·사회적 측면을 함께 다루는 연구들도 포함됨

※ 출처:

<https://investindk.com/insights/denmark-strengthens-biosolutions-infrastructure-with-major-investment>

22. 노보 노디스크 재단, '글로벌 팬데믹 대비 AI 기반 병원체 분석 플랫폼' 구축 2억 DKK 투자

-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Global Pathogen Analysis Platform (GPAP)'이라는 새로운 국제 인프라 플랫폼을 덴마크 기술대학(DTU) 중심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노보 노디스크 재단이 최대 2억 DKK를 향후 6년간 지원하기로 함

- 이 플랫폼은 유전자 병원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첨단 도구를 AI·바이오정보학 기반으로 제공하며 전 세계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임
- 설립 허브는 DTU의 국립식품연구소이며, 파트너 노드로는 University of Copenhagen, Statens Serum Institut, Imperial College London 등이 참여하고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기관들과도 협력함
- GPAP는 “One Health” 원칙에 따라 설계되며, 바이러스·박테리아·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 유전자 정보뿐 아니라 기후·인간 이동·식품무역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결합·통합하여 질병 위협을 보다 신속히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도화된 AI 기반 분석 인프라가 글로벌 보건 당국 및 연구자에게 제공되며 특히 저·중소득 국가에서도 기술 장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 플랫폼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는 전 세계 사용자(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협업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액티베이터 사이트’를 통해 현지 과학자·보건당국과 함께 실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됨
- 이러한 공동설계(co-creation) 과정을 통해 GPAP는 “실제 현장의 과학자 및 보건당국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을 목표로 함
- 플랫폼 책임자로 지정된 Henrik C. Wegener 교수는 질병감시, 과학정책,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임

※ 출처:

<https://novonordiskfonden.dk/en/news/novo-nordisk-foundation-launches-new-fellowship-programme-to-drive-sustainable-innovation-in-the-agrifood-sector/>

23. 노보 노디스크 재단, 농식품 부문 지속가능 혁신 촉진을 위한 신규 펠로우십 프로그램 발표

- 노보 노디스크 재단이 농식품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출시함
-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 기술연구소(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와 World Food Programme(WFP) IGNITE Innovation Hub와 협력하여 설계되었고, 펀딩 총액은 최대 9,700만 DKK로 책정됨
- 프로그램 명칭은 “BioSustainability Design Novo Nordisk Foundation Fellowship Programme(BSD)”이며, 덴마크 및 동아프리카 지역의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함

- 이 펠로우십은 향후 5년간 약 100명의 펠로우를 대상으로 10개월간의 풀타임 교육·멘토링·현장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덴마크와 동아프리카에서 운영될 예정임
 - 프로그램은 두 핵심 축을 중심으로 운영됨: ‘필요 기반 혁신 방식(needs-based innovation)’, ‘학제간 협업(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며, 펠로우들은 식품폐기물 감소, 식물기반 가치사슬 강화, 부가가치 부산물 활용 등을 팀 단위로 해결하게 됨
 - 동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현지 식품 생산·가공 역량 강화, 식품안전 및 품질 문제 대응, 식품폐기물 및 손실 감소에 집중함
- 이 이니셔티브는 덴마크의 기술 강점과 동아프리카의 혁신·기업가정신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스케일에서 확장 가능한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임
 - 덴마크에서는 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가 중심이 되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7,300만 DKK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아프리카에는 WFP IGNITE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400만 DKK 예산을 투입하게 됨
 - 프로그램은 덴마크와 동아프리카 간 지식교류 및 혁신역량 강화의 교량 역할을 하며,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기후변화·자원제한·증가하는 인구 등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출처:

<https://novonordiskfonden.dk/en/news/novo-nordisk-foundation-renews-interdisciplinary-postdoctoral-fellowships-programme-and-expands-with-new-institutions-in-sweden-and-switzerland/>

24. 덴마크 혁신기금, AI 기반 예측·처방 분석으로 산업 4.0 설비 유지보수 혁신 추진

- 덴마크 혁신기금이 산업 4.0 시대 설비 유지보수를 혁신하기 위해 AI 기반의 예측 및 처방 프로세스 분석(P³AI₄) 프로젝트에 약 1,918만 DKK를 4년간 투자하기로 함
 - 해당 프로젝트에는 Datalogisk Institut på KU(코펜하겐 대학교), DTU Compute(덴마크 기술대학교), Metroselskabet(코펜하겐 지하철 운영사), Everllence, DCR Solutions 등 산업·학계·기업이 협력 참여함
 - 프로젝트명은 P³AI₄ (Predictive and Prescriptive Process Analytics for Industry 4.0)이며, 실시간 데이터와 프로세스 마이닝(Process Mining) 기술을 결합해 자동화된 설비의 유지보수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임
- 이 프로젝트는 특히 자동화 설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이나 고비용 정비를 미리 예방하고, 산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컨대 Metroselskabet은 하루 약 4,500만 건의 이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고장예측 및 부품 교체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 Everllence는 선박 엔진의 오류 예측과 필요한 예비 부품 제공을 위해 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DCR Solutions는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예측·처방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음
- 이 펠로우십은 향후 5년간 약 100명의 펠로우를 대상으로 10개월간의 풀타임 교육·멘토링·현장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덴마크와 동아프리카에서 운영될 예정임
 - 프로그램은 두 핵심 축을 중심으로 운영됨: ‘필요 기반 혁신 방식’, ‘학제간 협업’이며, 펠로우들은 식품폐기물감소, 식물기반 가치사슬 강화, 부가가치 부산물 활용 등을 팀 단위로 해결하게 됨
 - 동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현지 식품 생산·가공 역량 강화, 식품안전 및 품질 문제 대응, 식품폐기물 및 손실 감소에 집중함
- 다만 기술 적용 과정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함
 -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현재 자동화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양, 그리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 부족임
 -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는 후행적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실시간 예측 및 처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술적·운영적 장벽이 있음
 - 특히 자동화 시스템 내 급격한 이벤트 변화나 예외상황은 현재 모델에서 설명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왜 이 예측이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설명가능성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출처:

<https://innovationsfonden.dk/da/news-article/ai-skal-forudsige-og-forklare-behov>

25.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총 9,700만 NOK 규모의 식품-환경-기후-공중보건 연계 연구 지원 발표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는 식품 시스템과 환경·기후·건강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8개 프로젝트에 총 9,700만 NOK를 지원함
 - 이번 사업은 식품 생산·유통·소비가 환경적 영향과 건강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구조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됨
 - 각 프로젝트는 기관당 약 1,200만 NOK 수준의 지원을 받으며, 기후 변화·오염물질·식품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함
 - 연구는 전국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학제 간 접근을 기본 요건으로 포함함
- 연구지원의 배경은 기후변화·환경오염·생물다양성 손실이 건강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
 -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영양·건강·환경 리스크로 이어지는 연쇄적 구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PFAS, 미세·나노플라스틱 등 환경 오염물질이 식품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가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단일 분야 연구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식품 접근성, 가격, 산업 구조, 소비 패턴 등이 건강 불평등과 맞물린다는 사회적 측면도 이번 연구지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포함됨
- 연구의 핵심 분야는 초가공식품, 오염물질(PFAS·미세플라스틱), 식품가치사슬 권력구조, 도시 식품체계 등 네 가지 영역이며, 이는 식품-환경-기후-건강이 연결되는 주경로들을 포괄함
 - 초가공식품 소비가 환경부하 증가, 건강악화, 식품정책과의 연계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포함됨
 - PFAS 및 미세플라스틱이 토양·수환경·식품을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거·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선정됨
 - 식품산업 가치사슬 내 권력구조가 식품 가격·접근성·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기후·환경·건강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연구됨
 - 도시 식품체계 연구는 도시화·불평등·식품 접근성의 문제를 다루며, 기후변화 시대에 지

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도시 식품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건강한 식품체계 구축, 오염물질 저감, 건강형평성 개선, 그리고 식품-환경-기후-보건 정책 간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하며 향후 정책 설계와 국가적 지속가능성 전략에 직접 활용될 전망임

기관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천 NOK 기준)	지역
Norges Geotekniske Institutt AS	토양·사료·식품 내 PFAS 저감을 위한 식물정화·열분해·바이오차 기반 순환 모델 개발	11,975	오슬로 (Oslo)
Stiftelsen Ruralis – Institutt for Rural- og Regionalforskning	식품·환경·건강·기후 전반에서 식품체계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구조 분석	11,975	트뢰넬라그 (Trøndelag)
SINTEF Helgeland AS	Nano-MAP: 양식·환경·공중보건을 위한 나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연구	12,100	노를란 (Nordland)
NTNU 인문대학(Det Humanistiske Fakultet)	LimEATS: 노르웨이 도시 식품체계의 정의·형평성·지속가능성을 위한 행성 한계 및 사회 기반 분석	12,100	트뢰넬라그 (Trøndelag)
Nofima	FoodLink: 초가공식품 소비와 환경·기후·공중보건 간의 연계성 분석 연구	11,990	아케르스후스 (Akershus)
Havforskningsinstituttet (해양연구소)	노르웨이 병원성 비브리오균 (Vibrio spp.)의 현재 및 미래 위협 분석 – One Health 접근 적용	12,100	베스트란 (Vestland)
Folkehelseinstituttet (공중보건연구소)	CLEANFOOD: 농장에서 식탁까지—식품 속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평가	12,100	오슬로 (Oslo)
Universitetet i Innlandet	Farmer Health: 기후변화 조건에서 설치류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및 대응 전략 평가	12,095	인란데 (Innlandet)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5/97-millioner-kroner-til-forskning-pa-sammenhengen-mellom-mat-miljo-klima-og-folkehelse/>

26.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선도적 연구자에 총 2억 300만 NOK 연구 자금 지원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는 19개 연구프로젝트에 총 2억 300만 NOK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함

- 이 사업은 연구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개방형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FRIPRO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번 라운드에서는 총 112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중 19건이 선정됨
 - 지원금 규모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약 700만 ~ 1,200만 NOK 수준으로 배정됨
- 연구지원 대상 분야와 주제가 매우 다양하며, 인문·사회과학에서부터 의생명과학, 물리학, 환경과학 등에 걸쳐 있음

기관	책임자	프로젝트명	신청총액
경력 연구자 프로젝트			
OSLO UNIVERSITETSSYKEHUS HF	Buru Gilbert Moatshe	유전자 치료를 통한 중증 골관절염 발생 예방 가능성 연구	11,960
UNIVERSITETET I OSLO	Anne Simonsen	암에서의 자가포식-대사 재프로그램 상호작용 규명	12,000
SINTEF AS	Ole Martin Løvvik	저온 열전냉각용 신소재 개발(Nomatec)	12,000
NORCE RESEARCH AS	Nicole Dopffel	할라이트(소금 결정) 환경 내 미생물 다양성 규명	12,000
UNIVERSITETET I BERGEN	Andreas Borchel	연어이(lice) 난자 영양 흡수 메커니즘 규명 및 유전자 기반 치료 개발	12,000
초기 경력 연구자 프로젝트			
OSLO UNIVERSITETSSYKEHUS HF	Håvard Takle Lindholm	대장암의 이중가닥 RNA 기반 취약성 규명	9,994
UNIVERSITETET I OSLO	Andrius Popovas	태양 대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물리(full-physics) 접근	10,000
HELSE BERGEN HF	Novin Balafkan	신경·심장 계통 유전 위험의 발달적 수렴 분석	9,999
UNIVERSITETET I TROMSØ – NORGES ARKTISKE UNIVERSITET	Ankit Butola	라벨-프리 온칩 형태·분자 단층영상 기반 세포소기관 실시간 분석 기술	10,000
UNIVERSITETET I OSLO	Nicola Pietro Montaldo	파킨슨병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반 신경 보호 메커니즘 규명	10,000
UNIVERSITETET I OSLO	William Reinar	HotSpot: 스트레스 유발 돌연변이의 진화적 역할 연구	10,000
UNIVERSITETET I OSLO	Santiago Jockwich Martinez	내포성·포식을 통한 새로운 모델이론 연구 (수리논리·기초수학)	6,937
UNIVERSITETET I OSLO	William Reinar	HotSpot: 스트레스 유발 돌연변이의 진화 연구	10,000
국제 이동성 프로젝트			

UNIVERSITETET I OSLO	Wanja Paulsen	탄소 융합 반응의 고급 단면적 및 분기비 측정 연구	7,399
----------------------	---------------	---------------------------------	-------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5/banebrytande-forskarar-203-millionar/>

27.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생명과학·자연과학·기술 분야 국가적 학문평가 후속조치에 1억 100만 NOK 지원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는 최근 실시된 네 차례의 국가 학문평가(생명과학, 자연과학, 수학·ICT·기술, 의학·보건)를 바탕으로, 학문 분야의 발전·협력·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 1억 100만 NOK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 지원금은 평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크게 4개의 신규 연구대학원(박사과정 학교) 및 19개의 연구네트워크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임
 - 평가 대상 분야는 ▲자연과학(EVALNAT) ▲수학·ICT·기술(EVALMIT) ▲생물학(BIOVIT) ▲의학·보건(EVALMEDHELSE)로, 이들 평가에서 제안된 “연구환경 개선, 전략적 협력 증가, 학문 갱신”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함
- 각 연구대학원은 모집된 박사과정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국내·국제 연구 네트워크 접근을 제공하며, 학문 교차·산업·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네트워크 이름	기관명
노르웨이 자연사 표본 갱신 전략 네트워크	Naturhistorisk museum
반응성 바이오소재 연구네트워크	NTNU
개방형 생태 데이터 네트워크	NINA
유기화학 연구네트워크	Universitetet i Bergen
MonsterVind - 해상풍력 구조물 몬스터파 하중 연구	Høgskulen på Vestlandet
KomplemeNT - 화학정보학·Non-target 분석 응용 연구네트워크	NTNU
양자활성 소재·현상 연구네트워크	NTNU
GAIA - 지구과학 AI 연합	NORCE
그린에너지용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OSLOMET
CONNECT-Q - 통신·네트워크·암호·양자기술 연구네트워크	NTNU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보안 연구 네트워크	SIMULA
Software Engineering Hub Norway	Universitetet i Oslo
MattNorVeg - 대수·기하·해석 및 응용 수학 연구네트워크	Universitetet i Bergen

- 19개의 연구네트워크는 각 네트워크별로 최대 200만 NOK까지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 협력 및 다분야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학문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연구기관 간 협력 부족, 산업·학문 간 연계 미흡, 국제화 저조 등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임
- 평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실행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임
- 향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박사교육 고도화와 전문 네트워크 활성화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음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5/101-millioner-nasjonale-fagevalueringer-livs-vitenskap-naturvitenskap-teknologi/>

28. SINTEF, 205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국가 전력소비 2% 도달 가능성 경고

- 데이터센터 및 AI 기반 연산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노르웨이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그 증가 폭이 산업계와 연구계가 예상해온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관찰됨
 - 특히 AI 모델 훈련과 대규모 연산용 서버 확대로 전력수요 가속이 두드러지며, 전력 공급·부하 관리·인프라 조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소비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 부문의 구조, 전력망 설계 방식, 장기적 에너지 전략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망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됨
 -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 비중은 낮지만, 증가 속도와 향후 성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석됨
 - 또한 전력난이나 공급 제약이 발생하는 특정 시기·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이 에너지 정책 논의의 중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음
- 데이터센터의 확산은 전력망 부하 증가뿐 아니라 인프라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촉진하는 잠재적 기회도 함께 제공함
 - 안정적 전력 공급, 고효율 냉각 등 높은 운영 요구조건이 전력 인프라 개선과 기술 업그

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음

- AI·디지털 기술 발전은 전력망 최적화, 예측관리,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부문 혁신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데이터센터 성장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균형 있는 전략적 관리가 요구됨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가 에너지정책·기후목표·산업전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지역·국가 에너지 계획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냉각·설비 부하, 장기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짐

- 특정 지역 집중 시 에너지안보, 전력가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 의제가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 출처:

<https://norwegianscitechnews.com/2025/11/data-centres-insatiable-demand-for-electricity-will-change-the-entire-energy-sector/>

29. NTNU 연구팀, 세계 최초로 지하 CO₂ 저장의 글로벌 누적 기록 완전 검증 결과 발표

○ NTNU와 국제 연구팀이 1996년 이후 전 세계 지하 CO₂ 저장량을 최초로 완전 감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연구는 여러 국가와 산업 프로젝트에서 이뤄진 지하 CO₂ 저장 데이터를 종합하여, 지금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CO₂가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음

- 이 기록은 각국의 보고자료, 프로젝트 운영 데이터, 검증 가능한 운영기록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탄소저장 기술(CCS)이 실험적 수준을 넘어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 감리 결과, 전 세계적으로 누적 3억 8,300만 톤의 CO₂가 영구적으로 지하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됨

- 저장량은 북해 등 해양 지층 저장 프로젝트뿐 아니라 육상 기반 CCS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하며, 실제로 지하 수백~수천 미터 깊이의 지질구조에 주입되어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CO₂량을 의미함

- 연구진은 “이 수치는 단순한 이론적 계산이 아니라 실제 저장된 양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CCS가 기후 대응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한 저장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계와 국가 정책에서 CCS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함

○ 이번 결과는 CCS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향후 기후정책과 산업 전

략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보고서는 “CO₂ 저장에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그동안의 가장 큰 논란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산업계가 CCS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설명함
- 또한 이번 감리된 데이터는 각국 정부가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계가 배출 저감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CCS의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연구팀은 향후 정기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전 세계적 데이터 공유와 검증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면 CCS의 신뢰성과 확장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함

※ 출처:

<https://norwegianscitechnews.com/2025/11/first-complete-record-of-global-underground-co2-storage/>

30. NTNU 연구진, 해양을 활용한 CO₂ 제거 기술의 과학적 가능성과 주요 불확실성 분석

- 해양 기반 탄소제거 기술(mCDR)이 지구 기후 전략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적용 전에는 여러 기술적·제도적 검증이 필요한 상태임
 - 해양 생물학적 방식(해조류 양식·플랑크톤 증식 등)과 지구화학적·물리적 방식(해수 알칼리화, 인공 하강류, 해수 직접 CO₂ 추출 등)이 제시됨
 - 이러한 방식들은 이론상 해양의 거대한 흡수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실제 ‘얼마만큼 CO₂가 제거되고’, ‘얼마나 오래 저장되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등의 검증이 아직 미흡함
 - 전문가 그룹은 “해양은 공동의 자원이므로 대규모 적용 전에는 보호체계와 검증체계(MRV)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해양 기반 탄소 저감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의 보완수단으로 가능성이 크며, 특히 지상 감축이 어려운 산업부문에서 중요할 수 있음
 - 배출 감축만으로는 기후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해양을 통한 잔여배출(Removal) 해결책이 부각됨
 - 해수에 CO₂를 녹이거나, 해조류를 키워 깊은 바다로 가라앉히는 방식 등은 장기 저장 가능성을 담고 있음
 - 다만 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실제 운영가능한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가”, “해양 생태계에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가” 같은 질문이 남아 있음

- 이 기술이 실제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책·모니터링 측면에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옴
 - 대규모 해양 기반 탄소제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시·보고·검증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 저장된 탄소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이동 경로는 어떤지, 저장된 물질이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 않는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함
 - 해양은 경계가 없고 유체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남는 리스크 없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생태적·거버넌스적 준비가 필수임

※ 출처:

<https://norwegianscitechnews.com/2025/11/can-we-tap-the-oceans-power-to-capture-carbon/>

31. NordForsk, ‘파괴적 기술’ 신규 국제 공동연구 공모 사전 발표

- NordForsk가 북유럽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분야 연구공모를 곧 공식 개시할 예정임
 - 이번 사전 안내는 연구기관들이 공모 개시에 앞서 컨소시엄 구성과 연구기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음
 - 공모는 기존 기술·시스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학제간 접근 방식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 해당 공모는 기술혁신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는 연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연구 성과가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강조되었음
- 본 공모는 북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가 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며, 세부 조건 및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임
 - 정식 공모는 2026년 1월에 발표되며, 구체적인 신청조건·예산범위·마감기한 등은 공식 공고문에서 최종 안내될 예정임
 - 참여하려는 연구기관은 반드시 복수의 북유럽 국가 파트너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국가 간 협력구조가 공모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되었음
 - 신청할 수 있는 총 예산 규모는 공고문에서 확정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구상 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음
- NordForsk는 이번 공모가 북유럽 지역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혁신 촉진에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함

- 파괴적 기술의 발전이 북유럽 사회와 산업구조에 미칠 잠재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강조됨
- 연구성과가 실제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는 단순 기술개발에 머무르지 않는 연구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NordForsk는 이번 공모가 북유럽 국가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출처:

<https://www.nordforsk.org/news/pre-announcement-upcoming-call-proposals-disruptive-technologies>



32.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에 잠정 합의... 2035년 중간목표·국제감축 활용도 포함

- EU 환경·기후장관들은 11월 5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하는 목표에 잠정 합의함과 동시에 EU는 2035년까지 66.25~72.5% 감축을 공식 약속하며 올해 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Belém) 기후회의에 제출할 공동 입장을 마련함
 - 핀란드의 환경·기후장관 Sari Multala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 목표였던 90% 감축이 유지되었고 필요한 유연성과 이행 지원 요소도 포함됐다”고 평가함

○ 합의의 주요 내용

1. 2040년 감축목표: 90%

- 기준: 1990년 대비
- EU 기후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로 유지

2. COP30 제출용 중간목표 확정 (2035년)

- 66.25~72.5% 감축
- EU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는 전략적 메시지

3. 국제감축(해외 감축) 최대 5% 활용

- 2036년부터 EU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최대 5%까지 목표 달성 가능
- 2031~2035년 파일럿 단계 운영

4. 이행 점검 강화

- 2년 주기 점검 체계 도입
- EU 산림의 탄소흡수(탄소흡수원)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 위원회가 2040 목표 조정 제안 가능
 - 또는 국제감축 사용 확대 제안 가능

5. ETS2(건물·도로 수송용 연료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연기

-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
- 다음 단계: EU 의회와의 3자 협상

- 이번 합의는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 채택, 의

화-이사회-집행위원회 간 3자 조정(Negotiation)을 거쳐야 하며, EU의 향후 기후법 개정 및 2040년 목표 확정 등 이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 선언될 예정임

※ 출처:

<https://valtioneuvosto.fi/-/1410903/eu-maat-sopuun-90-prosentin-paastovahennystavoitteesta-vuodelle-2040->

33. EU 혁신기금, 핀란드 5개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원 확정 — 차세대 청정기술 상용화 추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최신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61개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29억 유로의 지원을 결정함
 - 이 중 핀란드에서 추진되는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예상 지원 규모는 총 3억 유로에 달하며, 해당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집약 산업, 재생에너지·저장기술, 탄소중립 모빌리티, 청정기술 제조 및 탄소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 핀란드 환경·기후부 장관 Sari Multala는 “핀란드 기술력이 EU 혁신기금에서 연이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청정기술 전환 과정에서 핀란드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함
 - 향후 6개월간 각 프로젝트는 EU 집행기관 CINEA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일정·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최종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최종 지원액은 2026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임
- 선정된 5개 핀란드 프로젝트

① NotNukeOne - 태양광·농업 융합형 대규모 솔라파크 (Alight Ostonen Oy)

- 개요: 루오비사(Loviisa)에 핀란드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농업(agrivoltaics)’ 복합 단지 구축
- 기술 요소: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배터리 저장 시스템
- 핵심 목표: 태양광 발전과 농업 생산성을 병행해 수익성과 토지 활용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속가능 모델 제시

② SCOOP - 정유시설의 바이오·순환경제 전환 (NESTE Oy)

- 개요: 포르보(Porvoo) 정유공장을 재생연료·순환 원료 기반 생산 허브로 전환
- 기술 요소: 공정 전기화, 고급 바이오연료 생산(예: tall oil 기반), 지속가능 원료 다변화
- 핵심 목표: 화석 연료 중심 생산 체계를 바이오·순환 기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해 정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③ MAGHYC - 선박 내 저탄소 수소 생산 및 탄소 포집 (Royal Caribbean Group)

- 프로젝트 개요: 세계 최초로 선박 내 그린 연료 기반 수소 생산과 고체 탄소 포집 기술을 실증
- 기술 요소: BioLNG → 저탄소 수소 변환, 고체 탄소 회수

- 핵심 목표: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고, 순환경제 요소를 갖춘 새로운 친환경 선박 모델 구축

④ NEXT HYDROMET - 전기차 배터리의 고효율 재활용 (Fortum Battery Recycling Oy)

- 개요: 사용 후 리튬이온배터리에서 금속자원을 거의 폐기물 없이 회수하는 신규 습식정련 공정 개발
- 기술 요소: 고순도 리튬·니켈·코발트 회수, 폐기물 최소화
- 핵심 목표: EU의 배터리 공급망 자립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

⑤ SB-VARKAUS -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SuperBattery 대량 생산 (Skeleton Technologies Oy)

- 개요: 고속 충전·장수명을 구현하는 차세대 니오븀산화물 기반 SuperBattery의 핀란드 생산 확대
- 기술 요소: 초고속 충전, 긴 사이클 수명, 높은 전력밀도
- 핵심 목표: 급격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망 안정화 및 유럽 에너지 자립성 강화

- 이번 선정 결과는 핀란드의 에너지·산업 전환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EU의 탄소중립 산업 정책(Net-Zero Industry Act)과 맥을 같이하며 유럽 청정기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상징함

※ 출처:

<https://valtioneuvosto.fi/-/1410877/viisi-suomalaista-hanketta-saamassa-tukea-eu-n-innovaattiorahastosta-uusien-puhtaiden-teknologian-ratkaisujen-kayttoonottoon>

34. 핀란드-칠레, 5년간의 공동 혁신 프로그램 착수...녹색전환 기술 개발 본격화

- 핀란드와 칠레가 지속가능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5년간의 혁신 프로그램(Chile-Finland Binational Platform for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을 공식적으로 시작함
 - 이 혁신 프로그램은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칠레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테스트·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특히 지속가능한 광업·수소에너지·산림 기반 바이오경제 분야가 핵심 대상임
 - 프로그램은 헬싱키 Team Finland House에서 공식 출범했고, 핀란드의 VTT와 칠레 혁신기관 Fundación Chile이 공동 운영. 칠레의 개발기관 CORFO는 초기 파일럿 실행을 위해 2천만 달러의 시드 자금을 제공하며, 이후 양국 및 국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구조로 확대될 예정임
- VTT의 Jussi Manninen 사업총괄은 이번 프로그램을 “실질적 기술 개발과 파일럿을 중심에 둔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녹색전환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함

- 칠레 최남단 마가야네스(Magallanes) 지역에서는 이미 NEMa 혁신 플랫폼이 가동 중으로, VTT와 Fundación Chile가 지역 대학·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 항만·해양 물류 탈탄소화, 순환경제 솔루션, 데이터센터 에너지혁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강력한 바람 자원과 지역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되며, 핀란드-칠레 청정에너지 기술 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함
- 프로그램은 양국 산업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 기업들은 칠레 현장에서 기술을 공동 개발·검증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가능한 녹색 기술 제품·서비스 창출, 해외 투자 유치, 지속가능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가능해짐

○ 중점 분야

- 지속가능·순환경제 기반의 광업 혁신
- 수소 및 Power-to-X 기술
- 산림 바이오경제, 바이오 기반 소재, 목재 건축

○ 핀란드와 칠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전환 분야에서 공동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처:

<https://www.vttresearch.com/fi/uutiset-ja-tarinat/suomi-ja-chile-kaynnistavat-yhteisen-innovaatio-ohjelman-puhtaan-siirtyman>

35. 핀란드 아카데미, 연구성과 활용 지원에 9.7백만 유로 배정 - 탐페레대학교 6개 프로젝트 선정

- 핀란드 아카데미는 2025년 연구성과 활용(Rahotus tutkimustulosten hyödyntämiseen) 공모를 통해 총 9.7백만 유로를 27개 프로젝트(41개 부분 프로젝트)에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실용화와 사회적 영향력 제고를 본격적으로 강화함
-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연구·혁신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2026년 초부터 2년간 추진할 예정임
- 탐페레대학교에서는 여섯 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총 115만 유로 이상을 확보하였고, 선정된 연구들은 녹색 전자공학, 차세대 센서기술, 자율주행 기반 3D 비전,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공공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실용화 가능성을 제시함

〈 환경친화적 대면적 전자소자 제조 기술 개발 〉

- 연구자: Matti Mäntysalo / 224,689 €
- 연구내용

- 고해상도 인쇄 기술과 레이저 보조 ALD 공정을 결합해 대면적 전자부품을 친환경적으로 제조하는 새로운 공정 개발 -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속가능 전자소자를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핀란드의 '그린 일렉트로닉스' 경쟁력 강화 목표
〈 마이크로 공압 기반 신형 스트레인·힘·촉각 센서 기술 개발 〉 ▪ 연구자: Veikko Sariola / 299,998 € ▪ 연구내용 - 마이크로 공압(micro-pneumatic) 기반 센서 기술을 검증하고 세 가지 산업·의료 활용 사례에서 성능 평가 - 시장 분석, 지식재산(IP) 전략, 사업화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상용화 기반 구축 - 기존 스트레인 센서가 성능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차세대 센서 개발 목표
〈 차세대 자율주행·VR용 3D 시각지능 시스템 개발 〉 ▪ 연구자: Esa Rahtu / 223,981 € ▪ 연구내용 - 자율주행 차량과 VR 기기의 공간 인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차세대 3D 비전 알고리즘 개발 - PS 없이도 정밀한 주변환경 인식·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공동 개발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역할극 기반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 ▪ 연구자: Liisa Häikiö / 79,995 € ▪ 연구내용 - 공공조달의 영향 예측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롤플레이팅 기반 평가도구 개발 - 실제 공공조달 기관과 협력해 도구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활용성 검증
〈 고엔트로피 카바이드 소재 제조 공정 개발 및 산업 적용 검증 〉 ▪ 연구자: Gaurav Mohanty / 149,943 € ▪ 연구내용 - 산업 적용이 어려웠던 고엔트로피 카바이드(HEC) 소재를 저비용·지속가능한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하는 새로운 공정 개발 - VTT와 협력해 실제 산업 환경에서 소재 성능을 시험하여 상용화 가능성 검증
〈 디지털 시대의 혐오표현 대응 도구 개발(TACKLEHATE) 〉 ▪ 연구자: Kaarina Nikunen / 179,443 € ▪ 연구내용 - 혐오표현의 생산·경험·목격을 다각도로 분석해 교육자, 정책결정자,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통합 대응 툴킷 개발 - 지속 업데이트되는 공개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응 역량 지원

- 이번 선정은 탐페레대학교가 연구성과의 실용화·산업 확산·사회적 영향력 제고를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각 프로젝트는 핀란드 산업경쟁력 및 공공 혁신 생태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www.tuni.fi/fi/ajankohtaista/suomen-akatemiaalta-rahoitusta-tutkimustulosten-hyodyntamiseen-0>

36. 핀란드 연구위원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PoC 과제 선정... 총 970만 유로 지원

- 핀란드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Finland, RCF)는 2025년 ‘Proof of Concept (연구성과 활용)’ 공모를 통해 총 27개 프로젝트(41개 하위 과제)를 선정하고, 약 970만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선정율은 26%로, 2026년 1월 시작해 2년간 수행될 예정임
- PoC 프로그램은 기초·응용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를 사업화 가능성 검증, 산업·공공·사회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 실용적 환경에서의 기술 테스트,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 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핀란드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R&D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원 신청자들은 기존에 아카데미 프로젝트, 아카데미 연구자 펠로우십, 전략연구위원회(SRC) 연구비 등을 통해 성과를 축적한 연구자들이었음
- 심사는 RCF 산하 ‘연구활용 소위원회’가 수행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은 공통적으로 활용 경로의 명확한 정의, 아이디어의 잠재력과 실현 가능성, 명확한 목표 설정, 협력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역할의 구체적 제시 등에서 우수성을 보임

○ 2025 PoC(연구성과 활용) 대표 선정 과제 예시

1. 차세대 바이오센서 상용화 프로젝트

- 연구자: Tampere University 생명공학 연구팀
- 연구비: 약 25만~30만 유로
- 연구내용:
 - 초고감도 단백질·대사체 바이오센서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테스트
 - 병원·진단기업과 협력해 기술 검증 및 사업화 로드맵 구축
 - 용도: 조기질환 진단, 개인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

2. 저탄소 건축재 고도화 및 파일럿 적용

- 연구자: Aalto University 재료과학팀
- 연구비: 약 20만 유로
- 연구내용:
 - 산업부산물 기반의 친환경 시멘트·건축소재 실현 가능성 검증
 - 건설기업과 협업하여 실제 건축 모듈에 시범 적용
 - EU 탄소감축정책 대응형 소재로 전환 가속

3. AI 기반 공공행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 연구자: University of Helsinki·행정학 및 데이터과학팀
 - 연구비: 약 20만~25만 유로
 - 연구내용:
 - 정책 시나리오 분석, 시민피드백 자동 분류, 행정 효율화 도구 개발
 - 지방정부와 공동 테스트, 실사용성 검증
 -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목표
- 4. 순환경제형 배터리 금속 회수 공정 검증**
- 연구자: LUT University(라펜란타 공대) 에너지·화학공정 연구팀
 - 연구비: 약 30만 유로
 - 연구내용:
 -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저에너지 습식제련(Wet Hydrometallurgy) 공정을 실제 폐배터리 샘플에 적용
 - 효율·수율·경제성 검증
 - 북유럽 배터리 순환·자원자립 전략에 기여
- 5. 디지털 치료제(DTx) 상용화 타당성 검증 프로젝트**
- 연구자: Oulu University 의·공학 융합 연구팀
 - 연구비: 15만~20만 유로
 - 연구내용:
 -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대상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치료제 초기 프로토타입 검증
 - 병원·테라퓨틱 스타트업과 공동 실증
 - 규제·임상·비즈니스 모델 정교화

※ 출처:
<https://www.aka.fi/en/about-the-rcf/whats-new/press-releases/2025/research-council-of-finland-selects-projects-to-promote-research-utilisation/>

37. EU 차기 재정프레임(MFF 2028-2034)과 디지털 리더십 비전—CSC, “실행전략의 구체화가 핵심”

- 핀란드의 국가 연구·초고성능컴퓨팅 기관 CSC는 유럽연합이 발표한 차기 다년 재정프레임 (MFF 2028-2034) 제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힘
 - 특히 유럽경쟁력기금(ECF)과 Horizon Europe(HE)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더십 강화, 데이터·AI·고성능컴퓨팅(HPC)·양자기술·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등 EU 집행위원회의 전략

적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CSC는 해당 비전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실행 전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함

1.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의 필요성

- 디지털 주권·경쟁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EuroHPC의 향후 구조와 역할을 포함한 세부 실행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2. 지속 가능한 생태계 자원 확보

- AI·양자·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장기적·안정적 투자체계 구축이 필수이며, 유럽 내 데이터 주권 및 가치 창출을 투자 원칙으로 삼아야 함

3. 전문 인력·교육 체계 강화

-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투자와 연계된 고등교육·훈련·역량개발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4.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규제 혁신

- 경쟁력 있는 데이터경제 구축을 위해 EuroHPC 호스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5. 유럽형 데이터 인프라 확장

- 데이터 인프라는 EOSC 기반의 상호운용·연결성 높은 페더레이션 구조로 발전해야 하며, 유럽의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를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야 함

6. T&K 자원 배분 구조의 명확화

- ECF와 Horizon Europe 간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연구 인프라와 주제 연구 간 단절 우려가 있어, 각 기금의 책임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7. 국제 협력의 균형적 확대

- 제3국 참여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참여 기준 마련이 필수적임

- CSC의 이번 의견서는 EU가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기술, 데이터, 규제, 인재를 포괄하는 종합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MFF 2028-2034 협상에서 중요한 정책적 참고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함

※ 출처:

<https://csc.fi/lausunto/mff-2028-2034-komission-visiot-digitaalisesta-johtajuudesta-vaativat-konkreettisia-toteutussuunnitelmia/>

38. VTT와 NordAmps, AI·6G 시대를 위한 차세대 고성능 RF 반도체 개발 본격화

- 핀란드의 국립 연구기관 VTT와 스웨덴의 첨단 반도체 기업 NordAmps가 손잡고 AI, 6G, 위성 통신, 자율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의 핵심인 고성능·저전력 RF 반도체 개발을 시작함
 - 이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초고주파 통신 및 센싱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실리콘 기반의 수직 III-V족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라는 혁신적인 구조를 도입해 차세대 RF 전자 소자의 성능과 확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 유럽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주파 응용 기술의 급성장에 따라 새로운 소재와 제조 역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VTT와 NordAmps의 협력은 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VTT의 생산 라인에서 NordAmps의 혁신적인 RF 소자를 양산하는 것이며, 첫 단계로 고주파 저잡음 증폭기(LNA)를 시작으로, NordAmps의 독자적인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고객사에 공급될 예정임
 - 이를 통해 산업 규모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유럽 내 첨단 RF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는 VTT의 Micronova 클린룸 장비에 맞춰 기존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함
- NordAmps의 CEO Jan Andersson은 “VTT와의 협력은 우리 기술이 차세대 고주파 RF 프론트엔드 부품의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 기술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고성능 제품으로 발전시켜 통신과 센싱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강조함
- RF front-end 부품은 기지국, 위성, 레이더, 센싱 시스템 등 모든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높은 신뢰성과 에너지 효율성은 필수적임
 - 이번 협력은 유럽의 혁신 역량이 첨단 연구를 산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나아가 6G, AI, 자율 시스템 등 차세대 연결성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www.vttresearch.com/en/news-and-ideas/vtt-and-nordamps-join-forces-develop-next-generation-rf-semiconductors-enable-ai-and>

39. 산업 설비의 '예지보전' 현실화 - 저비용 센서와 머신러닝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모델 구축

- 핀란드 Skaala IFN Oy와 vAl:lla tuottavuutta 프로젝트팀은 탐페레대학교의 MOI-hankke (멀티디스플레이너리 Open IoT Hub)의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목재 가공 라인을 대상으로 한 저비용·비침투형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모델을 시험함
 - 이번 파일럿은 노후 설비에서도 복잡한 배선이나 고가 장비 없이 데이터 수집 및 머신러닝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둠
 - 실험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센서 박스를 가공 라인 외벽에 볼트 한 개로 부착해 10분 간격으로 30초 분량의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비 내부 전기 계통에는 손대지 않은 채 외부 진동만 측정만 한 뒤 모든 데이터를 무선으로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수집된 데이터는 Python 기반 분석 코드로 처리되었으며, 시간 창 분석, 통계적 특징 추출, 지연(time-lag) 요소 등 다양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모델을 학습시켜 정상 동작과 날(blade) 교체 시점의 진동 패턴을 구분하도록 함
 - 테스트 결과, 모델은 일부 실제 교체 시점을 정확히 포착했으나 약 30% 수준의 정확도와 오탐지 발생으로 상용화에는 미흡했으며, 그럼에도 예측 신호가 실제 진동 변화와 일관된 패턴을 보여 외부 부착 센서만으로도 유의미한 예측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확인함
 - 특히, 센서를 장비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먼지·열·진동이 심한 산업 현장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됨
- 파일럿은 향후 모델 정교화를 위해 다음 요소의 중요성을 드러냄
 - **정확한 메타데이터 확보:** 날 교체 시점의 초 단위 타임스탬프 기록
 - **충분한 데이터 축적 기간:** 다양한 조건에서의 자기 데이터 필요
 -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적용**
 - **공정 변수 기록:** 목재 종류, 길이 등 진동에 영향을 미칠 요소 포함
- 이번 프로젝트는 저비용 하드웨어와 경량 분석 코드만으로도 예지보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실증한 점에서 의의가 크며, GitHub에 공개된 분석 코드와 파일럿 보고서는 후속 개발과 산업 적용 확장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lehti.seamk.fi/verkkolehti/matalalla-kynnyksella-kohti-ennakoivaa-huoltoa-koneopimisen-avulla/>

40. 핀란드 5AMK 네트워크, 지속적 학습 혁신을 위한 공동개발 가속화

- 핀란드의 5AMK 네트워크(Haaga-Helia, HAMK, Xamk, Laurea, Metropolia 등 5개 응용과학대학 연합)가 ‘AMKmicro’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 학습(continuous learning)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작고 실무 중심의 교육 모듈(마이크로 자격)을 개발하고, 고등교육의 역할을 전통적인 학위 교육에서 산업 맞춤형 역량개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AMK 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유연한 학습 기회를 설계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전문가들은 공동 워크숍과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기업·기관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를 공동 설계(co-creation)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의 공동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오는 11월 20일 헬싱키 메트로폴리아대학에서 열리는 ‘5AMK 마이크로아레나(MikroAreena)’ 행사에서는 산업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직업 역량, 지속 가능한 복지, 그리고 평생학습 전략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5AMK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협력을 이어오며, 핀란드의 고등교육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과 유연한 역량 재교육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함

※ 출처:

<https://www.xamk.fi/yhteiskehittaminen-vauhdissa-5amk-verkosto-rakentaa-uusia-osaa-misen-ratkaisuja/>

41. 동핀란드대학교, 3개 국가 핵심 연구 ‘핀란드 아카데미 lippulaiva(Flagship)’에서 3.8백만 유로 추가 확보

- 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는 2026-2028년을 대상으로 동핀란드대학교(UEF)에 총 3.8백만 유로 이상의 lippulaiva(Flagship) 프로그램 추가 연구비를 승인함
 - 이번 결정은 2025년 11월 3일 확정되었으며, UEF는 바이오의약·산림·기후 분야의 3개

핵심 플래그십에서 지속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

핵심연구 및 내용

① GeneCellNano 플래그십

- 170만 유로 확보
- 이 연구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정밀 타깃형 유전자·세포치료(ATMP)기반의 신약 개발 추진
- 심혈관질환, 황반변성, 악성 뇌종양, 난소암, 방광암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 목표

② UNITE 플래그십

- UEF에 149만 유로, 전체 컨소시엄에는 560만 유로 배정
- UNITE는 기후 회복력 있는 산림·생태계 관리, 지속 가능한 바이오경제, 디지털·공간정보 기반 산림 관리, 게임 기반 기술 활용을 통해 핀란드를 글로벌 산림·메타버스 기반 산림지식의 선도국으로 만드는 것 목표
- 컨소시엄은 UEF, 루크(Luke), 국토측량청 Paikkatietokeskus, 탐페레대가 참여

③ UEF는 ACCC(Atmosphere and Climate Competence Center)플래그십

- 61만 유로 이상의 연구비 확보
- ACCC는 기후변화·대기질 악화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EU 및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적 연구 허브임
- 헬싱키대의 Markku Kulmala 교수가 책임자로, UEF의 Annele Virtanen 교수가 부책임자로 참여

- 이번 3개 플래그십의 연속 지원은 UEF가 핀란드 국가 연구·혁신 생태계에서 핵심적 전략기관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정으로, 미래 바이오의약 개발, 탄력적 산림·기후 대응, 고급 환경 연구 등 국가적 우선 분야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출처:

<https://www.uef.fi/fi/artikkeli/ita-suomen-yliopistolle-yli-38-milj-euron-jatkorahoitus-kolmelle-lippulaivalle>